

간호대학 학생들, 강의·실습실·학과방 흠어져 불편

1997년 설립 당시 정원 20명에 맞춰 설계돼

생명대 2호관 리모델링해 통합건물로 사용 계획

간호대학이 통합 건물 운영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간호대학은 1997년 12월 최초 정원인 20명의 학생 수에 맞춰 설계됐다. 하지만 현재는 72명의 학생 정원으로 인해 건물 공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전 문대학원과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간호대학의 시설은 해양과학대학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학과방은 해양과학대학 2호관에 위치하고 있다. 간호대학 4학년들의 실습 강의가 있을 경우에도 해양과학대학 내 간호학 실습 센터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대학 대 의원실과 신입 교원 연구실이 해양과학대학 2호관에 설치됐다.

해양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해양과학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간호대학 시설 이전 혹은 설치로 인해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간호대학의

학생들은 나이트게일 전서식 등의 행사나 시험이 있을 경우엔 의학전문대학원의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2학년 학생들의 일부 전공 강의는 인문대학 2호관 강의실에서 수강을 하고 있으며 실습 강의는 자연과학대학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학생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허연주(간호학과 2)씨는 “간호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의 위치가 너무 멀어 학과방을 한번 들리려고 셔틀버스를 탄 적도 있다”며 “통합 건물이 존재해 이동할 필요가 없는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의 학생들은 통합 건물 운영이 공간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임은 이해하나, 학생들의 동선을 감안한 공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간호대학의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생긴 문제라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최초 간호대학을

간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 판단이 지배적이었다”며 “간호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될 시점은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고 사업 계획이 진행된 이후라서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은 몇 년간 건물 신축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과 부지 마련 등의 문제로 번번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박은옥 간호대 학장은 “건물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대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최근 생명자원과학대학 본관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생명자원과학대학 2호관을 리모델링해 간호대학이 통합 건물로 사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대학의 이전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고, 리모델링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측정하기 힘들어 간호대학 학생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빈 기자



10월 7일 대운동장에서 아라체전 여자발아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생명자원과학대학 선수가 자연과학대학을 상대로 공을 차고 있다. 아라체전은 8일까지 12개 단과대학이 총 9개 종목을 겨룬다.

백승규 기자

캠퍼스에서 위안부 인권회복 운동

위안부 할머니 사범대에서 강연



김복동(89)할머니가 사범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캠페인이 학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환기시키고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10월 6일부터 이틀간 학생회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학생회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

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나비기금 모으기, 피해자 그림 전시회, 역사패널, 할머니께 편지 쓰기과 포토선언 모으기 행사가 열렸다. 실외에서는 이동평화도서관과 나비 페이스 페인팅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시급성을 알고 해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대생 리더십 캠프 열려

여대생 리더십 캠프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정순여 회계학과 교수) 주최로 10월 24일부터 이틀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성공하는 여성의 변화트렌드 이해로 기

사범대학 2호관 3307세미나실에서는 윤미향 대표와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의 강연이 열렸다. 위안부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 후 학생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설명과 일본정부의 태도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안에서 위안부의 인식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를 원한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정부는 사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여자부터 총여학생회(회장 정승원 환경공학과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윤미향), 제주평화나비(대표 이민경 지리교육전공 3)가 공동 주최했다.

김해진 기자

업이 바라는 여성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 캠프는 재학 중인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여대생 리더십향양,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 면접 커뮤니케이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754-4452, 4457). 김하윤 기자

학생자치기구 선거일정 확정

18일 총선거·4일부터 토론회

201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일과 후보자 정책토론회 일정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명찬 수학과 4)의 주관으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가 11월 18일 각 단과대학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투표를 진행된다.

이에 앞서 총대의원회 선거는 11월 11일 실시된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총학생회가 내달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갖는다. 이후 총대의원회는 5일, 총여학생회는 6일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 1차 정책토론회 4일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 5일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 6일 △총대의원회 선거 11일 △총학생회 2차 정책토론회 13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 18일.

강경태 기자

제주대, 95개대 중 대학평가 37위

평판도 제외시 29위, 교육여건·재정 부문 최상위

제주대(총장 허향진) 대학평가 순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제주대는 6일 발표된 ‘2014년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 결과 평가대상 95개 대학 중 37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39위) 보다 두 계단 뛰어 오른 것이며 2012년(40위), 2011년(42위), 2010년 46위와 비교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선 경상대와 강원대 보다 앞선 7위를 기록했다. 제주대는 이중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에선 4위를 기록해 최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제주대는 이 가운데 교수 확보율과 학생총원을 실적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평판도 부문을 제외하면 95개 대학 중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 및 재정 평가는 △교수당 학생수 △교수 확보율 △학생당 도서관료 구입비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

세입중 납입금 비율 △학생총원을 △증도 포기율 △세입 대비 기부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은라인 강의공개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대학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교육여건(90), 국제화(50), 교수연구(100), 평판·사회진출(60) 등 총 300점을 만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취업의 질을 반영하기 위해 ‘유지 취업률’이 도입됐다. 또한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불필요한 순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어강의 비율의 상한선이 20%(지난해 25%)까지 하향됐다.

허향진 총장은 “우리대학이 부족한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전국 20위권 내의 상위대학 진입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진 기자

법전원·의전원 신입생 오는 10일까지 모집

법전원 일반전형 36명 등 44명 선발

의전원 일반전형 30명 등 40명 선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 교수)과 의학전문대학원(원장 주승재 교수)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법전원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반전형 36명, 특별전형 8명 등 총 44명을 선발한다. 특히 제주지역 소재 대학출신자 10% 이상을 포함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해 선발한다.

서류 접수는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공인영어 성적표, 특별전형 지원 자격 증명서류 등을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1단계 합격자는 10월 31일 발표한다. 이후 구술고사는 11월 8일과 22일 두 차례로 나눠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한다.

의전원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반전형 30명, 특별전형 10명 등 총 40명

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제주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취득자와 제주지역 소재 대학 학사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서류 접수는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공인영어 성적표, 특별전형 지원 자격 증명서류 등은 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1단계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한다. 면접고사를 11월 22일에 치른 후 최종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한다. 문의=입학관리과(☎754-2045) 정현 기자

16일 생명대 본관동 기공식

생명자원과학대학(학장 고성보 산업융합경제학과 교수) 본관동 신축 기공식이 10월 16일 감공화웨과과학기술센터 남쪽부지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허향진 총장과 고성보 학장, 박양희 삼도종합건설 대표를 포함한 학내외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다. 백승규 기자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 관계로 11월 5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5학년도 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원서접수	• 2014. 10. 13.(월) 10:00 ~ 10. 16.(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4. 10. 28.(화) 10:00 ~
특 전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유럽 : 알브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 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내규에 따라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풍력공학부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선발방법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http://gwe.jejuni.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설

사라캠퍼스 학생복지 개선 위해 노력해야

지난 9월 17일 사라캠퍼스 미래창조관에서 교육대학 학생회 주최로 개강총회가 열렸다. 학생회는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매점 등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교육대학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황우화 제주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 사무국장의 생협 안내 설명을 들었다. 학생회가 전체 학생 485명 중 396명(81.6%)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현재 외부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학생식당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만족스럽다'는 학생의 응답이 6%, '매우 만족스럽다'는 학생의 응답이 1%에 불과했다. 또한 교대 학생 47%가 학생식당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사라캠퍼스가 학생복지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투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문제는 본보(2013. 5.1. 891호) 사설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그 후 1년 만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생식당 문제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다. 대학 당국과 생협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우선, 대학 당국은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운영이 입찰을 통한 외부업체 운영 방식에서 생협 운영 방식으로

로 전환되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 시점이 10월인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나 재정적인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망적인 자세를 '지금' 취할 경우,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을 대학 당국은 주지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을 하는 외부업체가 학교 단체 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사라캠퍼스 학생들의 인식과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협은 사라캠퍼스의 생협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금 사라캠퍼스에서는 학생, 교수, 직원을 중심으로 생협 가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교수가 이미 생협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대학 학생회는 총회 때 생협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듣고 학생들의 생협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협은 협동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와 상생의 대학 문화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협이 '지금, 여기'에서 '협동', '복지',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라캠퍼스 구성원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10월 중순 열리는 제주대 생협 이사회는 사라캠퍼스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

대학축제,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축제(祝祭, festival)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의미하며 잔치 혹은 축전과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요즘은 지역 사회, 학교,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학교 축제, 영화제, 음악 축제, 지역 문화제, 종교 축제, 록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축제는 광장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계층의 구분 없이 같은 장소 같은 주제를 갖고 즐기며 지역공동체를 튼튼하게 형성,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축하', '공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축제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은 '축하', '공유'의 개념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의 개념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도내외에서 진행돼 왔던 각종 축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먹고 노는 프로그램 일색의 축제가 대부분이다. 축제의 주제에 맞게 차분하면 서도 흥겹고(축하) 참여의 가치(공유)를 높일 수 있는 축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대학의 축제현실 역시, 아라대동체의 정신과 취지에 맞는지 지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캠퍼스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느 연례행사 와 다를 것 없이 비싼 비용을 치루고 연예인을 초청하여 흥겨운 공연프로그램이나 각 학과별로 운송계 추

첨되어 개설하는 소위 학사주점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소주상자와 맥주상자가 가득히 쌓인 학사주점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어울려 깊은 대화와 동문의 정(情)을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캠퍼스의 풍경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흔히들 대학을 비유하여 상아탑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상아탑은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잠기는 경지를 의미하며 학문세계의 순수성과 전문성을 갖는 장소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의 문화는 캠퍼스 밖의 문화와는 달라야 한다. 그것은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이끌어가야 할 최고의 지식인을 육성하고 생활하는 이 시대가치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 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제주사회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축제, 그리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한바탕 흥겨운 놀이축제의 주제로 다루는 축제, 여기에 학사주점이 토론의 장소가 된다면 과거의 학사주점과는 다른 의미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대학의 기능과 역할변화가 요구되고 있듯이, 이제 대학축제 역시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상아탑의 의미에 걸 맞는 생산적인 축제로 변해야 할 때이다.

“취업을 잡아라” 청년취업 일자리박람회 열려

48개 기업 참여했지만 유망기업에 인원 편중

심리·인성검사, 이미지에이킹 등 프로그램 제공

‘2014 청년취업 Job-Ara Festival’이 10월 2일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일자리 박람회는 제주대 LINC사업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일자리 박람회는 크게 현장채용관, 이력서작성대 및 정보검색대, 취업컨설팅관, 취업채용설명회장, 야외행사장 등 5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일자리 박람회 중 현장채용관은 한국해수관상어센터, (주)넥슨네트웍스 등 총 48개 참가기업이 부스별 면접 및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업과 직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부스 운영자들은 자신의 기업을 홍보하는 자리였다. 많은 기업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채용관

은 몇 개의 인기 기업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인원이 찾은 뿐이었다.

제주YWCA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진로심리검사, 한국유통전자직성영구소는 지문인적성검사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졸업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헤어·메이크업을 통한 취업 이미지에이킹과,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등이 취업컨설팅관에서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졸업생 김범진(독일학과 08학번)씨는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유명 기업을 찾기보다 자신의 흥미·적성에 맞는 부스를 방문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정 (주)인포다이렉트 팀장은



10월 2일 체육관에서 일자리박람회 ‘2014 청년취업 Job-Ara Festival’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운영본부에서 참가확인서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스펙에 집착하는게 안타깝다”며 “디자인과 편집능력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취업컨설팅 상담 내용이 고학년에

목소리가 있었다.

고수경 (미술학부 2)씨는 “진로와 취업 중 상담내용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상담신청서에는 취업관련 답변만 기입할 수 있었다”며 “진로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상담신청서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물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제주대 LINC사업단, 동국대와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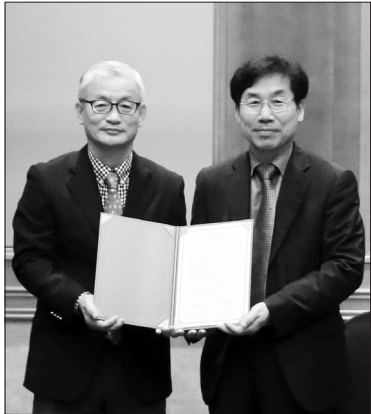
산학협력 증진 프로그램 협력

‘문학과 미디어 강점’ 기대

제주대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 생명과학공학과 교수)이 9월 26일 시내 호텔에서 동국대 LINC사업단(단장 이의수 생명화학공학과 교수)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대는 산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업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산학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캡스톤 디자인 및 캡스톤 유선 관련 학생 및 학술교류 △창업관련 상호 교류활동 △현장실습 기업 및 참여 학생 중



9월 26일 제주 라마다프라자에서 제주대 LINC사업단과 동국대 LINC사업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개 △산학협력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상백 단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동국대학교의 ‘문학과 미디어의 강점’을 우리대학에 적용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이 산학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서윤 기자

살아있는 박물관 첫 프로그램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10월 8일 ‘살아있는 박물관: 제주이야기 in Museum’의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고대오 말테우리(복동) 하르방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를 박물관 2층에서 진행한다.

우리시대 마지막 말테우리인 고대오 하르방이 ‘말테우리의 삶과 제주의 모습’을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박물관 학예실 (☎754-2243) 김해진 기자

GTEP 7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청년무역사업단〉

이나현(경영정보)씨 장관상 수상

제주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단장 이용완 무역학과 교수)이 9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제7기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수료식’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주

대 GTEP는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이번 장관상을 받았다. 또 우수요원으로 뽑힌 사업단 이나현(경영정보학과 4)씨는 산자부 장관상, 정의웅(무역학과 4)씨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GTEP 7기는 전국에서 총 776명의 요원을 중 684명이 수료해 88%라는 역대 최고 수료율을 기록했

다. 전체 수출실적은 약 518만 달러(원화 53억5000만원)로 지난해 6기가 달성한 실적에 비해 약 59만 달러(원화 약 7억)가 증가했다.

강수빈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번호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당신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제주대신문은 진실을 담아내고 정론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예비 언론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패기, 열정을 제주대신문에서 불태우십시오.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 입사지원서 접수
 - 대상: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 기간: 2014년 10월1일(수)~10월24일(금) 오후 6시까지
 -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주대신문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
- 전형방법
 - 면접: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현직 기자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중앙 언론에서 활동하는 편집시스템 통한 첨단 편집 교육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 취재수당 및 원고료 수시 지급
- 문의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건강증진센터 이용 안내

- 의사 진료 및 투약
- 진료 시간 : 아라캠퍼스 - 화, 목(14:00 ~ 17:00)
- 응급 의약품 지급 및 외상 치료
- 학교생활 중에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하거나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적절한 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정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건강증진실 운영
- 체성분 검사 : 근육량과 체지방률 지수 등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 몸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방법인 체성분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 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 구급함(약품) 지원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공적인 행사시(M·T, 농촌봉사활동, 답사,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장기 출장 등)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급함과 남은 약품은 행사가 끝난 뒤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상담부 운영
- 성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교육, 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 등을 합니다. 상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위치 및 문의처
아라캠퍼스 - 본관 대학원동 1층(☎754-2059, 2060)
사라캠퍼스 - 학생회관 1층(☎754-4722)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시행

↑

← 제주여고

↓ 제주대

아라중

학원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대동제로 해마다 몸살 앓는 잔디광장

잔디관리에만 4천여만원… 매년 증가해

잔디광장 아닌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대동제로 인한 잔디광장의 훼손으로 복원을 위한 예산 낭비 등 많은 지적이 일고 있다.

잔디광장은 9월 23일부터 삼일간 열린 대동제로 인해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이 개막 행사 당일인 23일에는 많은 비(일강수량 44.7mm)가 내려 예년보다 훼손이 더 심했다. 이에 현재 진흙이 잔디의 성장에 방해되기 때문에 진흙을 긁어내고 물로 쓸과 음식물 찌꺼기 등을 세척하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잔디광장은 전체 잔디 면적 12만 3840㎡ 중에 1만1570㎡로 약 10%를 차지한다. 이 넓은 면적의 잔디가 단 3일만에 사용불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학내 조정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약 1억2000만원으로 그 중 4278만원이 잔디관리(사슴동산,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제2도서관, 야외박물관 등)에 사용됐다.

이는 전액 기상화비에서 지출되며 총무과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잔디광장에 심어진 잔디는 난지형 잔디로 조성 후 성숙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대동제와 같은 훼손 시에는 회복에 다른 잔디에 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년 해는 5월에 대동제가 열리고 그 다음 해 5월까지 복구하는 등 1년간의 복구기간이 있었지만 올해는 9월에 열려 내년 5월에 대동제가 열린다면 복구기간이 짧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강봉균 총무과 주무관은 “복구 작업시 최대한 기존의 잔디를 사용할 것이고, 심하게 훼손된 곳은 불가피하게 새 잔디를 심을 예정이다”며 “완벽히 복구하는데 1년가량 소요되는데 씩이 여러 상태에서 내년 5월에



대동제로 인해 훼손된 잔디광장에 직원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대동제가 열린다면 잔디가 더 심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대동제가 열릴 때마다 잔디광장을 훼손하고 복구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단지 비올 때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잔디가 완전히 눌러 흩어 날릴 정도로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여

론이 생성된 만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정치외교학과 1)씨는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로 인해 잔디광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다시 복구하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돈 낭비이다”며 “잔디광장 말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학내 도서관 소음 심각… 면학 분위기 조성 필요

출입문서 대화·전화 통화 등 학생들 의식 개선해야

학생들이 도서관 내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크고 작은 소음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다.

중앙도서관 출입구에서는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외부는 괜찮다고 생각해 큰 소리로 떠들지만 정작 열람실 안에서는 대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 또 일부 학생은 열람실 내에서 친구와 대화를 주고 받는다. 중앙도서관 1층에 위치한 정보검색실에서도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 하나에 다수가 앉아 토론하거나 과제를 하면서 한참동안 통화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규방 (토목공학과 4)씨는 “취업 준비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열람실 내 소음으로 집중을 할 수 없다”며 “특히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소리가 가장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제2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2도서관은 도로와 주차장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의 소음에 노출돼 있다. 또 출입문이 가까워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쉽게 들린다.

제2도서관 1층 열람실 출입문은 강화유리 출입문이 아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조심하지 않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윤종필 (수의예과 2)는 “도서관 측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시험기간이 다가오는데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만영 자료관리과 실무관은 “매년 언급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항상 강구하고 있다”며 “가켓갈기, 스티디룸과 세미나실 설치 등을 계획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험기간이 되면 1000명 이상이 열람실을 이용해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이쩍 수 없다”며 “학생들을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백승규 기자

체육학부 학생들이 성화봉송로 도일주 행사 가져

10월 1일부터 1박 2일 동안

1988년 이후 매년 열려

체육학부(학부장 제갈윤석 교수) 학생들이 ‘제26주년 88올림픽 및 2014 전국체전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 행사를 가졌다.

1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자전거 일주는 180명의 체육학부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첫째날 아라캠퍼스를 출발해 성화봉송로인 애월, 한림, 한경, 대정 등 서부지역을 돌았다. 둘째날에는 남원, 표선, 성산, 구좌, 조천 등 동부지역을 경유해 최종목적지인 사라캠퍼스에 도착했다.

김군의 체육학부 학회장은 “체육



10월 1일 체육학부 학생들이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를 제주대에서 출발하고 있다.

스포츠의 메카인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려 이번 일주가 더 의미 있었다”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도로 주행을 하는 동안 교통통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2014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 희망포럼 개최

10월 2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사회과학연구소(소장 민기 행정학과 교수)가 10월 2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2014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 희망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제주인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재외제주도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민기 사회과학연구소장이 발표했다.

이후 양영주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부회장, 문봉만 (울산 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정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토론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포럼을 주최한 허영매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회장은 “희망포럼은 재외도민 지원 운영에 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며 “앞으로 재

외도민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 기자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작품전 8일부터 열려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학부장 오창훈 교수) 제24회 졸업 전시회가 8일부터 17일까지 연 북로에 위치한 연경라리에서 열린다.

먼저 이번 졸업전시회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디자인이 바라는 공감’을 주제로 도자·금속작품이 전시되며 12일부터 17일까지는 ‘디자인이 바라

는 공감’을 주제로 섬유제품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18명이 참여해 도자·금속작품 20점, 섬유제품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김경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4)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4년의 결실을 맺게 돼 시원섭섭하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관람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제주4·3연구센터 개설키념

국제학술대회 8일 개최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4·3연구센터 개설키념 ‘오кина와 문학과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가 8일 오후 1시부터 인문대학 1호관 3층 문화원 형체험관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김동운 탐라문화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허항진 제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어 아카하시 토시오(와세다대) 교수의 ‘세계문학으로서의 오кина와 문학’, 마타요시 에이키 오кина와 소설가의 ‘오кина와, 동아시아 그리고 나라의 문학’, 김재용(원광대) 교수의 ‘오кина와에서 본 베트남 전성’, 김동운(국어국문학과 교수) 원장의 ‘제주문학과 오кина와 문학의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9일은 오전 9시부터 제주4·3유적지 탐방이 진행된다. 문의=탐라문화연구원 ☎754-2310 유주연 기자

OCLC 아태지역 협의회

13일 그랜드호텔서 열려

제주대와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차 OCLC 아태지역 협의회 2014년 국제 컨퍼런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OCLC는 전 세계 170개국 7만여 도서관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비영리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기관이다. 세계 각국의 교육 및 학술연구를 위해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국가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도서관 관계자와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연구기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승규 기자

제주조릿대 RIS사업단

조릿대 길 걷기 축제 열어

제주조릿대 RIS사업단(단장 김세재 생물학과 교수)은 10월 3일부터 이틀간 교래리 사려니숲길 일대에서 ‘제1회 힐링로드 제주조릿대 길 걷기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조릿대 길 걷기 외에도 조릿대 제품 시음, 조릿대 배만들기, 조릿대 사진전, 완주 스탬프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특히 완주자들에게는 다양한 조릿대 제품과 경품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강경태 기자

진성기 관장 ‘ 명예문학박사’ 받는다

〈제주민속박물관〉

10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평생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

진성기(78·사진)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이 10일 오전 11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제주대학교는 진성기 관장이 반세기 넘게 제주의 문화유물 수집에 기울인 노력과 보존·전시·문화재연구 등 평생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의 역사와 전통 보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진 관장은 지난 1964년 제주시 삼양동에 국내 제1호 사립박물관인 제주민속박물관을 설립, 제주 민속문화 지킴이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주민속박물관에는 1만여 점의 민속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30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조상들이 농사짓고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살았던 모든 유물과 생활용구, 무구, 부채, 말안장까지 있다. 풍수지리서 영주영도초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급이다. 박물관 마당 한편에는 각 마을의 당신인 ‘무신궁’ 140여점이 모셔졌다.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장은 반세기 넘게 제주 문화유물을 수집·보존·전시·연구하면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그는 또한 대학생 때인 1958년 등사판으로 낸 ‘제주도 민요’ 1~3집을 시작으로 ‘제주도학’, ‘무속학’, ‘탐라어로 따낸 제주도 옛말사전’,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무속학사전’, ‘제주도 신화와 전설’, ‘제주도민요전집’, ‘제주말로 캐낸 올레집 옛말’, ‘제주의 세시풍속’ 등 30여권의 책을 발간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직접 집필한 ‘무속학’을 교재로 제주의 무속 전반에 대한 무속학 강좌도 마련했으며, 성경 66권을 제주방언으로 내놓는 등 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 민요, 수수께끼, 지명, 민

속, 무속, 민속놀이, 향토음식 등 그의 연구 분야는 제주도 인문사회 전반을 아우른다.

진 관장은 그동안 제주도문화재위원·중앙문화재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제주도문화상(1974년)·탐라문화상(2010)·옥관문화훈장(2003) 등 다수의 상과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진 관장은 7월 28일 열린 ‘제주민속박물관 소장품 기증 협약식’에서 50여년에 걸쳐 수집한 민속유물과 출판물, 사진 자료 등 3만여점을 제주대에 무상기증키로 했다. 정용복 팀장

‘고랑몰라 먹어봐사 알주’ 제주잔치음식 체험

1일 박물관 주관으로

고깃반·몹국 등 시식 행사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주관하는 ‘고랑몰라 먹어봐사 알주’가 1일 열렸다.

이날 박물관은 양영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가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고깃반, 몹국 등 제주 잔치음식 체험의 기회를 마련했다.

제주의 잔치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깃반’은 생반에 얹게 썬 돼지고기 수육 석 점과 두부 한 조각을 얹은 것으로 ‘한 명에게 한 그릇씩’ 원칙아래 하객들에게 밥과 함께 대접했다.

학생들과 유학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깃반과 몹국 식사 후 마무리됐다.

양영진 연구가는 “80년대 이후



양영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가(왼쪽에서 두번째)가 한 학생에게 제주잔치음식인 고깃반과 몹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일된 육지음식과의 혼합으로 제주 고유의 맛이 사라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제주향토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살아있는 박물관-제

주이야기 in Museum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박물관 3층 야외테라스에서 진행됐다.

한편 살아있는 박물관은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김해건 기자

이혜은·김유리씨 ‘2014 옥외광고 공모전’ 대상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오창희씨 금상 등 18개 작품 수상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대거 입상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가 주최한 ‘2014 옥외광고대상 공모전’에서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주임교수 김기필 교수) 학생들이 대거 수상했다.

‘도동봉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사인물 제안’을 낸 이혜은(4), 김



이혜은씨

김유리씨

오창희씨

유리(4)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오창희(4)씨의 다섯 가지의 즐거움 오명거리를 주제로 한 ‘힐스리

상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특선과 입선에 뽑혔다. 강수빈 기자

사람들

김태일(건축학전공) 교수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김태일(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가 10월 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건축 계획 및 설계가 전공으로「제주지역의 주거이동 특징에 관한 연구」등 다수의 논문과「제주도시 건축과 삶의 풍경」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강수빈 기자

이혜선(의류학과) 교수

장진우씨 천연염색상 수상

이혜선(의류학과)교수와 장진우(의류학과 3)씨가 한국섬유공학학회와 한국염색가공학회가 주최로 9월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부산국제산업융합유소제전시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인 천연염색상을 수상했다.

학술대회에서 이혜선 교수팀의 ‘줄표를 활용한 면직물의 염색’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박소연 기자

현진원(의학과) 교수

국제저명 암 학술지에 소개

현진원(의학과)교수가 국제저명 암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표지에 약력, 경력 및 연구 활동 내용이 45권 6호(2014년 12월 게재)에 소개됐다고 6일 밝혔다.

현 교수는 2013년부터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학술지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초청돼 10일 함양대 내성 작용기전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바이오·코스메틱스 트랙’ 통해 학생 지원과 취업 한번에

대학특성화(CK)사업단 < 2 > 생물다양성기반 천연화장품산업 인재양성사업단

대학교구조개혁에 따른 대학특성화(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에 제주대는 4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5년간 180억(연 36억원)을 지원받으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각 사업단의 목표와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생물다양성 기반 천연화장품산업 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개 학과(생물학과, 화학·코스메틱학부)의 14명 교수(생물학과 7명, 화학·코스메틱학부 7명)와 241명의 참여 학생(생물학과 127명, 화학·코스메틱학부 114명)으로 구성됐다.

◇사업단 특성화 배경

제주지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1800여종이 넘는 육상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800여종의 해양식물을 보유한 국내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학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제주의 지정학적 자원의 무한한 상품성에 사업단은 주목했다. 사업단의 롤 모델이자 협력 기업은 바로 화장품 기업 ‘이니스프리’이다. 이니스프리는 천연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청정 제주 원료와 이미지를 제품의 메인 컨셉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비약적으로 성장중이다.

이니스프리의 성공은 제주지역이 천연화장품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시켜준 결과다. 이는 국내외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제주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현재 제주지역 식물을 이용한 천연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제주도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주지역 화장품 기업 수는 2003년 8개에서 2013년 현재 71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화장품 기업 종사자 수도 724명에 달하며, 매출액도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업단은 사업단 특성화 추진에 나섰다.

최근 발표된 ‘제주 헤리티지콘텐츠를 활용한 자연주의 화장품 글로벌브랜딩 전략 연구’에서 제주가 보유한 대표적 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화장품 브랜드 도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천연화장품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 아열대 생물다양성의 탐구, 보존,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제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식물의 특성 및 기능성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생물다양성과 천연물화장품의 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지역 전략산업 성공에 중요한 요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천연화장품산업에 꼭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단 참여 학생들의 혜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종 지원을 통해 교류수학·취업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학생들은 사업단 취업상담지원센터에서 상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단 내 학생 경쟁선발을 통해 우수학생에겐 해외기업을 포함한 연구소 견학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프로그램 이수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한 A급-C급 장학생 선발, TOEIC 응시료 전액 지원, 사업단 참여 소와의 1:1 면담 시간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을 위해 각종 교육 과정을 사업단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했다. ‘바이오·코스메틱스 트랙’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특성화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은 학생들이 바로 취업 현장에 투입되도 무방할 정도로 철저하게 연구·분석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바이오·코스메틱스 트랙은 총 60학점으로 구성된 전공 교과목이며, 참여 학생들은



천연화장품산업 인재양성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화장품 연구를 하고 있다.

30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 타 학생들보다 취업에 우선순위를 갖는다. 특히 학생들이 4학년 2학기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화장품 품질관리’강의와 ‘CEO 강좌’는 산업 현장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 직접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서 익혀야 할 내용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강유미 연구원은 “타 학과의 경우 졸업을 위해 전공 이수 학점이 높거나 필수 전공 강의가 많아 원하지 않아도 강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단이 제공하는 바이오·코스메틱스 트랙 교과목은 학점 이수의 부담도 줄이고, 학생들이 이론 강의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의 앞으로의 과제

사업단은 생물학과와 화학·코스메틱스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두 개 학과가 공동으로 수강하는 교과목을 개설했다. 기존 양 학과는 각자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했지만, 사업단은 생물·화학 두개의 전공을 유연하게 접목시켰다.

사업단은 기존 화학·코스메틱스 학부의

졸업생들이 화장품 관련 회사에 취업해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 1세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화장품 기업·식의약품·연구기관 등에 인력조사를 적극 실시해 이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나간다.

사업단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특성화 분야의 개선 사항이다. 화학·코스메틱스학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3·4학년 커리큘럼을 화학전공, 코스메틱스 전공으로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학 개편과정에서 시행된 학과 통·폐합 진행으로 2015년부터 ‘화학·코스메틱스학과’로 통합돼 무산됐다. 이에 사업단은 전문성 강화의 차선택으로 2014학년도 2학기부터 화학공학 전공 전임교원 확보에 나선다. 또한 (주)이니스프리, (주)UCL, (주)롯데 등의 유망 화장품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유미 연구원은 “보다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전공 교육 과정의 세분화와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무척 중요하다”며 “참여 학생들과 협력 기업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사업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윤 기자

인터뷰 이남호(화학·코스메틱스학부 교수) 사업단장

“기업체 맞춤형교육으로 취업걱정 덜어”

▶생물다양성기반 천연화장품산업 인재양성사업단 소개를 하면.

“사업단은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천연화장품 산업’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연화장품산업을 제주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학생들이 자생식물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이루기 위해 기초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지역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사업단의 목표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으로 선정된 배경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제주도 고유 지역의 환경이 특성화 사업에 부합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된 생태학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고 봤을 것으로 판단한다.”

▶천연화장품산업 사업단만의 장점은.

“사업단은 지역산업 밀착형이다. 제주도가 화장품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에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아주 우수하다. 제주 지역산에 기초하면서 양성된 졸업생들이 지역 내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국적으로 화장품과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4년제 대학은 우리 학교가 최초라는 사실이 다른 사업단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



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천연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은.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가 천연화장품·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주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를 컨셉으로 화장품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니스프리’이다. 이니스프리의 성공은 제주도가 국내 화장품 산업에 허브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내외 화장품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화장품 회사들이 화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인 요청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 이에 필요인력을 교내에서 육성하고 육성된 인력이 기업에 공급되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인재상은.

“사업단이 요구하는 학문은 융·복합 학문이다. 생물, 화학, 디자인, 인문사회 등의 다양한 지식을 함께 총괄하기 위해 기초학문을 잘 갖춘 기본기가 튼튼한 인재를 원한다. 나아가 화장품과 관련된 소양들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전원 취입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사업단은 유능한 인재상을 키워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배워야

변화는 내 자신이다

김 정 현 / 딜라이트 대표

창업은 재미있게 하면 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얻을 것은 많다. 창업에 허황된 꿈을 담지도 않았고, 그저 현실에서 즐겁게 일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딜라이트’는 지금은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대학시절, 남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토익을 공부할 때 가난한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청기 개발에 들어갔다. 당시는 너무나 초조했다. 하지만 사람이 경제력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보청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취약계층에 저가형 보청기 보급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돈 걱정은 좀 덜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학업을 통해서 진리나 삶의 의미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창업을 생각했다. 1년 반 정도 경영학 공부를 하다가 2008년 사회적기업 연구모임인 넥스터스를 만들었다. 넥스터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이를 어떻게 국내에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우선 드는 생각은 ‘왜 이런 걸 시작하게 됐을까’다.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사는 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넥스터스를 통해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다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들이 150~200만원을 호가하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을 봤다. 2009년 4월 중소기업청에 저가보청기 사업 제안서



“창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해도 다른시각과 감각을

갖게 되므로 여학연수로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를 제출했는데, 사업지원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을 시드머니(Seed Money)로 하고 본격적으로 보청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0년 7월 문을 연 딜라이트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이름 그대로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기업’을 지향한다. 미리 사업제안서도 썼고, 몇 차례 창업 경험도 있으며, 창업 동기도 뚜렷했지만 역시 사업은 그리 쉽지 않았다. 보청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려다보니 첫 모델이 나오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우리 기업은 보청기를 시중 가격보다 70~80%나 저렴하게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에 맞춰 가격이 책정됐다. 그래야만 이들이 부담 없이 보청기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다. 2010년 보청기를 처음 개발한 뒤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찾아 거래처에서 요

구하는 물량을 맞추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이후 대기업의 투자도 받았으며, 공장도 세우고, A/S점도 전국 곳곳에 설치했다. 그렇게 4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정부에서 대표적인 청년 CEO의 성공 벤처의 사례로 뽑힐 정도가 됐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이 없이 단지 취업만이 ‘목표’인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제주건 서울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진로가 공무원이다. 주변에서 쉽게 하는 것들, 막연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좋다고 평가되는 것들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시각이 달라진다. 실령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우라 해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과 다른 시각, 감각을 배우기 때문에 1년간 어학연수로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땀땀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우고 여러 가지를 체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게 된다. 창업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해서 포기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시간들을 사회가 알아줄 거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20대에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누구나 소중한 사람인데,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엄밀히 따져보지 않는다.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통과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 결국 무엇을 한다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자기 뜻을 위해 일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커진다. 이런 이치를 터득한 후 자기 할일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자는 행복을 얻기 마련이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자. 망설이지 말고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자.

정용복 팀장

나를 이기는 힘

고 유 봉 / 코칭리더십개발원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휘하는 평소의 능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우리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다. 필요에 따라 그 잠재능력을 끌어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잠재능력을 표출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잘 경청하고, 칭찬하고 질문하는 리더가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한다.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리더십을 구현해야 나도 살고, 조직도 살고, 사회도 살 수 있다. 소통과 인성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변화, 경청, 칭찬, 질문 네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정제되고 유연한 언어를

변화에는 한계가 없다.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위에서 지시를 하고 밑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고리타분한 문화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그리고 감정을 보임으로써 상대방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고도의 지적행위이다. 말은 있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배려와 공감과 감동이 없어져 가는 세상이다. 언어는 선천적인 재능이기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언젠가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인생이 되기 때문에



“칭찬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작이다.

칭찬을 받고 자랐느냐 아니면

욕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인생의 역정에 큰 차이가 있다”

다. 갑자기 좋은 인생을 얻는 사람은 없다. 좋은 생각을 하다보면 곧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기보다 즉각 답을 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 소통과 대화의 중요한 관문은 잘 듣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듣기는 하기 때문에 ‘나는 잘 듣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경청의 기술은 몸을 똑바로 하고, 눈을 보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경청의 달인이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작이

다. 그것은 인류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돼 왔다. 칭찬이 있어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을 받고 자랐느냐 아니면 욕을 많이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인생의 역정에 큰 차이가 있다. 칭찬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준다. 칭찬에도 원칙이 있다. 즉시,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자주 칭찬하라. 좋은 감정으로 칭찬하라. 작은 일에도 칭찬하라.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등이다.

리더의 기본은 소통과 대화이다. 미래의 훌륭한 리더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답을 주는 리더가 아니라, 잘 경청하고 칭찬하고 질문한다. 또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한 번의 질문이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다.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지식은 힘이라는 자기 축적의 과정을 넘어 실행으로 옮길 때 빛이 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은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현자로 만든다.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질문으로부터 얻는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변화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가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를 마주치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생각하므로 편견과 선입관을 갖는다. 나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틀린 것이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만의 닫힌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이 곧 차이이다. 배타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스티븐 코비 박사도 힘은 유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에서 나온다고 했다.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정용복 팀장

스마트 기기의 양면성... 과해도 탈, 적어도 탈

학술기고 스마트 패러다임 명과 암, 그리고 우리의 자세



변영철
컴퓨터공학과 교수

요즘 ICT(정보통신기술) 뉴스에는 온통 스마트(smart)라는 단어가 난무하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일 것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모바일 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스마트 카메라,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 스마트 코리아 등 공간적인 영역으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오래다. 스마트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스마트는 영리한(clever)하다는 뜻이다. 영리하다는 것은 재주가 있는, 혹은 기발하고 재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 관한 이야기다.

이 세상은 혁신(革新, innovation)에 목이 마른다. 사전적인 의미로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하다’는 뜻이다. 새로운 ICT 제품이 등장할 때면 으레 ‘혁신성’이 주요 키워드가 되었고, 이는 곧 글로벌 기업에게는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 폰이다. 음성통화용으로 충분했던 휴대용 전화기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PC) 영역까지도 그 역할을 빼앗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은 기존의 것을 고쳐서 PC에서 하던 일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는 의미에서 혁신적인 스마트 기기가 맞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 미국의 경영전문지 포천(Fortune)에 의해 예측되었다. IC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폰을 포함하여 PC의 역할을 대체할 다양한 기기가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실제로 오늘날 인터넷 접속물에 있어서 스마트 폰을 통한 접속 비율이 PC를 통한 그것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스마트 폰이 단지 통화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정보검색, 금융, 문서 작업 등의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 폰의 폭발적인 사용은 미국 애플(apple) 사의 공동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모바일 운영체제(OS)와 두 손가락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큰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웬만한 문자 전송이나 메모, 혹은 정보 검색을 위한 문자 입력은 이제 음성으로 할 정도로

음성인식 성능이 향상되었다. 사용의 편리함에 따라 사용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는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app)의 수요를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eco-system)가 구축되었고, 이는 곧 글로벌 기업의 캐시 카우(cash cow, 고수익 상품)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 폰을 바탕으로 애플은 몇 년째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800억불(약 500조원)이 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자랑하고 있다. 애플과 소프트웨어 플랫폼(OS)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google)이 400조원 정도로 2위이고, 하드웨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가 200조원 정도로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은 ICT 기업들의 잔치가 되어 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세계 1위였던 휴대 폰 제조업체인 노키아가 몰락할 정도이니 최근의 스마트 폰은 그 단어의 긍정적인 뜻과는 달리 어떤 기업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혁신 선점을 위한 ‘스마트 전쟁’

당연히 혁신 선점을 위한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애플과 같은 기업은 더욱 공고해진 생태계를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와 타 기업들은 혁신 패러다임을 되찾아오기 위해 뺏고 뺏기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며칠 전 애플에서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 폰인 아이폰 6s와 6+를 발표하였고, 항상 그렇듯이 제품에 대한 수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혹자는 혁신이 부족하다거나 상실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지만 경쟁자인 다른 기업에게는 위기론이 언급될 정도로 새 제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참으로 크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플 이외의 기업들은 전략을 바꾸어 새로운 제품을 조기에 발표함은 물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 폰이 쉽게 구부러지는 ‘밴드(band) 게이트’니 틸이 벌어져 있다는 ‘갭(gap) 게이트니’하는 조롱섞인 평가도 나오고 상대방의 약점을 자신의 기기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모바일 폰에서 시작한 스마트 대전(大戰)은 스마트 워치(시계)로, 최종적으로 스마트 TV를 포함하는 스마트 가전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전쟁’이 더 흥미로워지는 이유이다.

글로벌 기업 간의 스마트 전쟁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는 곧 더 나은 기기, 보다 양질의 서비스의 출현을 의미한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 기기 하나로 우리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connected)’돼 있고 어디에서든 손가락 하나로 PC 앞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을 한다. 시장조사 기관인 Pargo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미국 내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58%가 스마트 기기로 야마존에서 쇼핑을 하였고, 스마트 폰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국의 네티즌은 6억 명, 모바일 네티즌은 5억여 명으로 모바일 사용률이 80%를 넘기면서 PC 사용률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며칠 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상장으로 250억 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하여 엄청난 대박으로 이어지면서 야마존(Amazon)과 이베이(eBay)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로 탈바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으로 엄청난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기기 사용의 한계 및 부작용

양질의 서비스 혹은 새로운 앱이 파생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활용에는 한계점도 보인다.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 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SNS와 게임 등 스마트 폰의 특정 앱을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회의나 회식자리에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 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이제는 아주 흔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모바일 분석기관인 플러리(Flurry)에서는 하루에 60분 이상 스마트 기기를 쳐서 앱을 작동시키는 것을 스마트 폰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 폰 중독자가 1억 8000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스마트 폰 중독방지를 위한 앱이 나오기도 한다니 이른바 소재양난(笑啼兩難,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종류(위)와 중국 제조사가 모방해 만든 스마트폰 기기들(아래).

기기의 활용 방법에 따른 세대 간 정보격차, 개인 간 정보 격차도 커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한 기기’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양날의 검(劍)이기도 하다. 정보격차나 개인정보 등 파생되는 부작용, 누구나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Uber) 앱에서 보듯이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 문제 등은 관련 법률가나 행정가에게 맡겨두자. 다만 지금부터 나 자신부터 스마트 폰을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스마트 기기관련 교수자로서 두 가지 행동, 즉,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와 ‘스마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연결을 끊기(disconnected)’를 권장하고자 한다. 전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로서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중독성있는 이 문명의 이기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서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스마트 기기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에 명심할 필요가 있다.

권하고 싶은 책

자신의 참모습 찾기 위한 노력

꽃들에게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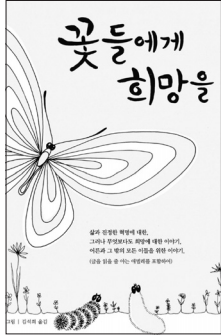
트리나 폴러스(김석희 옮김) | 시공주니어 | 8000원

이 책의 낱가에 소개된 저자 트리나 폴러스는 한국 독자를 위한 감사의 말을 전할만큼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분이다. 또한 14년 동안 공동농장에서 일하면서 우유를 짜고, 채소를 길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소규모 환경 센터인 농장을 운영할 정도로 더불어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직접 실천하고,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작가 스스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독자들에게 또 다른 혁명-에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는 혁명-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 에벌레가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유적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두 마리의 에벌레가 겪는 사랑과 희망을 향한 모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알에서 세상으로 나온 호랑 에벌레는 먹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길을 떠난다. 그 길은 수많은 에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에벌레 기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기둥 끝에 단순한 삶 이상의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하지만 그 기둥 끝은 너무 높아서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에벌레들은 서로 먼저 꼭대기에 이르려고 기를 쓴다. 기둥을 이루고 있는 다른 에벌레들과 똑같이 ‘오로지 남을 믿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잡힌 호랑 에벌레는 다른 에벌레를 밟고 또 밟으며 자신이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그 여정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떠밀림에 의한 막막한 길이 되고 만다. 그러던 중 자신의 밑에 깔린 노랑 에벌레와 대화를 하게 되고, 둘은 다름과 미움이 있을 뿐인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미망에서 깨어난다.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이고, 참모습을 발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나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길이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

노랑 에벌레는 결국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된다. 에벌레 기둥으로 다시 올라갔던 호랑 에벌레 또한 갖은 고생 끝에 꼭대기에 오른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서 아

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 꼭대기에는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미동의 에벌레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호랑 에벌레는 높이만 오르려고 했던 자신의 본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기둥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노랑 에벌레에서 거듭 태어난 노랑 나비의 안내를 받으며 나비가 되기 위해 에벌레 기둥이 아닌 나무를 기어오른다.

많이 알려진 책인 만큼 누구나 한번쯤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서 중심을 잡고 희망을 향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권해 본다. 지금도 에벌레 기둥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꼭대기에 이르면 분명 빛나는 순간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간다. 그러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꼭대기에 올라선 순간이 몰지라도 자신의 과오와 헛헛함에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삶은 때때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나지 않고는 좀 더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망입니다.”(울긴이의 말 중에서)

고난의 길일지라도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서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는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수 있으려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비는 미래의 네 모습일 수도 있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지.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 준다.”

김영희 교육학과 강사·교육학 박사

대학가 소식

釜大新聞

미등록 이륜차 제재에
학내 구성원들 입장 엇갈려

부산대의 이륜차 단속계획에 불만을 가지는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 본부는 이륜차 등록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륜차를 소지한 학생들은 △서류 미소지 △보험료 부담 △이동중독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등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륜차 등록시 이륜차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은 등록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륜차는 중고로 구입할 경우 서류 없이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50cc미만의 이륜차에 한해서는 서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50cc미만 이륜차 등록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대번호, 차명, 차연식 등만 알고 있으면 구청에서 의무보험가입과 등록이 가능하다. 총무과 정준석 씨는 “등록이 되지 않는 50cc이상 무서류 이륜차에 대해서는 추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이륜차 등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총무과 정준석씨는 “학내 이륜차에 관해서는 관리권한 책임이 학교에 있다”며 “이륜차 등록은 만일에 있을 큰 사고에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신문

연구실 공간부족으로
실험 장비 복도에 설치



연구실 공간이 부족해 실험 장비가 복도에 설치돼 있다.

경북대 일부 건물에는 많은 연구실 기기가 복도에 설치돼 있다. 농생대 등에는 실험중심 기기들과 실험에 필요한 시약, 실험 도구가 보관돼 있는 시약장이 무방비로 놓여있다.

현재 농생대 1호관에는 119개의 실험기 기들이 복도에 설치돼 있으며 그 중 41개는 잠금장치가 돼있지 않다. 2호관에는 48개의 실험기기 중 12개, 3호관은 46개의 실험기기 중 20개, 또한 자연대 생물공학관은 72개의 실험기기 중 23개, 자연대 생물관에는 43개의 실험기기 중 30개가 잠금장치가 돼있지 않다.

충대신문

생활관 기숙형 프로그램
강제성 논란

충남대 학생생활관이 생활관거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RC교육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시행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C교육프로그램은 본교 RC(기숙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4개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해당 강의를 매주 1회(중간고사 기간 제외), 총 8번을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RC교육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불참학생에게는 벌점이 주어진다.

이같이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개인시간을 빼앗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와 ‘참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RC교육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학생생활관 측은 동기부여의 수단은 필요하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을 위해 고심해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학생생활관 강석구 부관장은 “이번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에서 명강의로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 받은 강의”라고 말했다.

RC교육프로그램을 둘러싼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생활관은 향후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연세춘추

‘재수강 3회 제한’ 재검토 등
총학 요구사항 학교 측 ‘거부’

연세대는 9월 18일 학장협의회 논의 결과, 총학생회 학사제도 개선 요구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학생회가 요구한 개선 방안은 크게 △재수강 3회 제한 제도 재검토 △절대평가 과목 확대 △영어강의 질 향상 및 자율화 세 가지다.

총학생회는 4월 2일 ‘연세인 교육권 공동행동’을 통해 위의 내용을 포함한 8개의 교육권 관련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6월 20일 총장과과의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재수강 3회 제한 제도 재검토 △국제캠퍼스 서를 증차 방안 마련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그 중 재수강 제도를 비롯한 학사제도 관련 요구안은 18일 학장협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재수강 제도와 절대평가 과목의 경우 기존의 학사제도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었따. 영어강의 자율화는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됐다.

교무처장 정인권 교수(생명대 바이러스학과)는 “학생들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순간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학교 교육이 안정되기 위해서 학사제도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高大新聞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거부 선언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조장

고려대 제47대 안암총학생회(회장 최종운)가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을 진행한다. 운동의 일환으로 안암총학은 22일 ‘마음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대자보 글을 교내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번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은 안암총학의 제1공약으로, 중앙일보의 대학순위평가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9월 9일 안암총학이 발행한 ‘대학순위평가 반대운동 자료집’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시행하는 대학순위평가는 대학의 △서열화 △양극적 평가 △수치만을 위한 국제화 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교수의 연구 업적이나 학생 평가 등을 정량적 지표로 환원해 질적 평가가 아닌 양적 평가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학 평가의 자료 제공에 참여한 한 이공계 교수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지표 중에는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에만 집중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종은 총학생회장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수치화할 수 없는 여러 가치를 존중하는 사립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大學新聞

사범대 해외연수
우선선발 조건 논란

서울대 사범대가 ‘사범대 공개강좌’ 수강과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이수율 해외교육연수 우선선발 기준으로 정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외연수 지원자들은 국가별로 지원을 해 영어성적과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수대상자에 선발돼 왔으며 우선선발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범대 전태원 학장(체육교육과 교수)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자 우선선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공개강좌와 해외연수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 우선선발의 기준이 학생들에게 뒤늦게 알려졌다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범대 이태연 학생회장(역사교육과 11)은 “동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등 불가피하게 강좌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전태원 학장은 이에 대해 “우선선발 비율이 적은 만큼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좌를 듣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사범대학생회 측은 10월 1일 사범대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리·유주연 기자

내년 1월 담뭇값 2천원 인상... ‘이참에 담배 끊자’

기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담배와의 싸움



현 장 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팀장

요즘 세월호 특별법 다음으로 담배가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담배는 멕시코에서는 ‘못생겨서 남자들이 피하는 것에 비판자 살한 여자가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키스하고 싶어요!’라는 소원을 빌어 그녀가 죽은 자리에 생겨난 것이 담배라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담배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정때 인디언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유럽에 전파하였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일본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담배가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는 담배연기 속에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발표했고, WHO는 ‘흡연은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다. 국내 담뭇값에 표기된 성분만 보더라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 등급 1~2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다.

또한 담배 맛을 좋게 하고 중독증상을 강화시켜 주는 여러 종류의 화학첨가물은 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다. 2012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 ‘담배 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암모니아 성분이 “한국산 담배에도 들어있다”고 발표했다.

담배의 해악에 대한 연구보고서로는 1964년 미국 공중 보건국장 ‘테리’가 발간했던 ‘흡연과 건강(Terry’s report)’이라는 중립적인 최초의 정부 보고서가 유명하다. 보고서는 담배 연기 속에는 다수의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있고, 흡연은 폐암을 위한 각종 암과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고 발표하여 담배는 건강에 크게 해로운 물질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흡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밝혔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성인 흡연율은 3개월 만에 15% 가까이 줄었다. 의회는 1965년 모든 담뭇값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비흡연자 보호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올해 보고서 발간 50돌을 맞아 ‘테리보고서’의 개정판이 발표되어, 담배가 폐암 이외에도 제2형 당뇨병, 발기부전, 시력감퇴, 간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수십 년을 이어온 담배와의 싸움은 수백만의 조기

사망을 성공적으로 예방하는 역사적 업적을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 높았고,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관련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000억 원 규모(2011년)로 분석되었다.

세계 각국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여 참가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담배규제기본 협약(FCTC)’에 따라 금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담배수요 및 공급 감소조치, 건강보호조치 등이며, 구체적으로 담뭇값 포장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담배가격규제 등이다. 한국은 담뭇값 주요 표시면 50%이상의 건강경고 메시지 및 그림 삽입, 낮은 담배가격 등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이 미흡한 편이다. 다행히 최근에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담뭇값 2000원 인상, 담뭇값에 흡연폐해 경고 그림 삽입,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 구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3개 담배 제조사(KT&G,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흡연폐해의 과학적 규명자료를 토대로 국내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담배의 주요 성분	
성분명	기능
나프틸아민	방광암의 원인, 림프관의 원인
니켈	폐암, 간경변증
벤젠	혈액에 영향, 빈혈과 백혈병의 원인, 세제, 농약의 원료
비닐클로라이드	폐암, 뇌암의 원인, PVC(플라스틱), 접착제 재료
비스(프탈레이트)	피부암, 신장장애 및 말초신경장애, 조선시대 사약의 원료
카드옴	전립선암, 신장암의 원인, 금속도금 재료
타르	폐암의 원인, ‘담뭇진’이라고 불리며 담배의 독특한 맛은 타르에서 나옴 약 43종의 발암물질 함유, 아스팔트재료
니코틴	담배 중독의 원인, 헤로인, 마리화나 보다 중독성이 강함. 면역계, 심혈관계, 발암 관련 다양한 생체 경로 활성화시킴
일산화탄소	산소 수송능력을 저하시켜 허혈성 심장질환, 뇌질환 위험도 증가시킴

담뭇값 디자인 비교	
우리나라	외국

예쁜 디자인 젊은 층 호기심 자극 흡연 유혹, 경고사진 안써 폐암환자 사진인쇄 등 혐오감 표현 청소년 흡연을 독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담배의 성분(사진 위)과 우리나라와 달리 담배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외국의 담뭇값이 비교되고 있다.(사진 아래)

년까지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 800여건에서 전부 패소했으나 제프리 위건드 박사 등에 의해 담배회사 내부문건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에서 담배의 본질은 니코틴 중독이고, 중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발암성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청소년과 여성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펼쳐왔음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국 49개

주에서 위스턴D. C. 연방법원은 “흡연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었다. 담배회사들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을 생산 판매해 많은 질병을 일으켰고, 엄청나게 많은 사망과 축적할 수 없을 정도의 개개인의 고통, 경제적 손실 그리고 국가보건제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통해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이렇듯 담배와의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담배는 독이다.’라는 유언을 남긴 어느 유명 코미디언의 딸처럼 담배는 인류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위험물이다. 나 자신도 금연을 실천한지 30년이 넘었다. 고등학교시절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대학교 군대를 거치면서 하루 1갑 이상을 피웠고, 술을 마실 때면 알코올로 인한 니코틴 분해상승작용으로 줄담배를 피기도 했다. 나의 금연 시도는 아내의 첫 아이 임신을 계기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다. 갑자기 니코틴 공급을 중단하니 금단증상으로 목이 결겼하고, 속이 더부룩하여 거북하고, 무의식중에 침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흡연 욕구는 10여 년간 나를 괴롭혔고, 꿈에서 담배를 피고 놀란 적도 여러 번이었다. 담배는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 힘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담배는 일시에 끊어야 한다. 핏수를 줄이는 방법은 담배 맛만 더 좋게 할 뿐이다. 점점 흡연 공간이 좁아지고 비흡연자들의 눈초리도 따가워 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흡연율에서는 전국 1위를 달린다. 더 이상 니코틴과 깊은 정(情)이 들기 전에 담배를 끊자.

인체에 치명적인 담배의 위험성 알아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담배 소송 제기

흡연을 전국 1위 제주,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인정한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암 등록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 코호트(특정 집단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기법)’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답한 3484명에 대한 공단의 치료비 부담금(53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동안 개인이 제기한 국내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암발생과의 연관성, 담배제조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란 판결로 흡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다.

담배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도 1994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2060억 달러(약 210조원) 배상합의, 금년 7월에는 남편이 폐암으로 숨진 부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는 236억 달러(약 24조원)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1997년 주정부에 담배소송 권한을 주고,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담배회사로 돌리는 내용의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만들어졌다. 2005년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주정부들은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거대한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무수한 사람들

로컬뉴스

‘소나무 에이즈’ 재확산

국비 지원 난항까지 겹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까지 실시된 재선충병 1차 실재조사 결과 7만8000본의 소나무 고사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나무 고사목은 내년 4월까지 28만본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산림전문기관인 산림기술협회에 의뢰, 방제전략을 수립을 완료한 후 15일부터 내년 4월까지 방제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2차 방제에 필요한 예산 219억원 중 지방비 30억원을 제외한 국비 189억원만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산림청 예산안에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반영됐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173억원을 투입, 집중적으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된 지방비로는 정상적인 방제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재선충병 방제시기를 늦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47억원의 형세와 연인원 11만명을 투입한 방제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과 장비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과목을 2014년 2학기부터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다문화 이해교육을 이수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리고 인식을 전환시켜 다문화학생과 조화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대학교와 다문화이해교육 전공필수 과목 전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 미래 초등학교 교사가 될 교육대학생 4개반 120여명의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과목을 이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주민들의 다문화 인식전환을 위해 도내 15개 어린이집과 12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다문화가족들을 참여시켜 민속공연 및 국가소개, 공연품 만들기 등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자발적 봉사참여 이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해 병원, 미술실, 영화관 등 할인혜택 가맹점 103개소에서 물품 구입 대금의 5~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1365’에 누적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자원봉사자 카드에 탑재해 이용료, 관람료, 주차료 등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50~10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추가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와 카드리더기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훈련을 마련하여 올해 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등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제도화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라산 풍광 담은 사진전

내달 30일까지 어리목안내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강시철)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라산 어리목탐방안내소에서 한라산의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라산의 가을에서 겨울까지’를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한라산에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한라산지킴이들의 모임인 한라산 사진동우회 회원들이 한라산의 가을과 겨울풍경을 담은 사진 50여점을 전시하며 이를 통해 한라산을 간접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어리목 탐방안내소에서의 사진전이 끝나면 제주 시내 다중 집합장소에 사진을 전시해 보다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라산의 자연풍경을 감상할 기회를 마련하고 유네스코 3관왕·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와 함께 한라산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라초대석 <8> 김백기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예술감독

“예술은 최초일때 가장 아름답다”

“젊음과 문화가 녹아있는 곳, 예술가들의 메카였던 ‘홍대거리’는 죽었다.” 어느 한 예술인은 또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많은 문화 평론가들 또한 홍대거리는 더 이상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곤 한다. 이제 예술을 위한 도시는 없는 것일까. 제주도란 넓은 발에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김백기 예술 감독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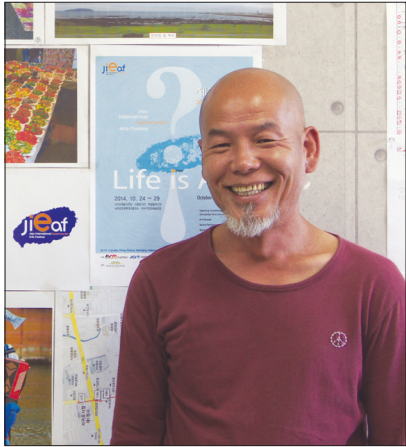
“어제서 12년간 활동하던 홍대를 뒤로하고 제주도로 왔나고 많이 묻곤 합니다. 물이 한 곳에만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그동안 내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예술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백기 예술감독은 서울 홍대 앞에서 한국실험예술제를 12년간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김 감독의 실험 예술은 예술 중에서도 가장 비주류에 속한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다른 예술장르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는 폭탄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횡단보도에서 발레를 하거나, 지하철에서 뮤지컬을 하는 등 파격적이고 쉽게 상상하기 힘든 예술을 선보인 그는 KoPAS(한국실험예술단체)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을 해 나갔다.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음악, 무용, 연극, 미술, 사진, 영상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 김 감독이 꿈꾸던 한국실험예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김 감독과 예술의 만남은 우연히 찾아왔다. 대학생 시절, 그는 어느 대학교에서 길거리 퍼포먼스를 하는 한 예술가의 공연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대학로를 걷다 한 남자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아바위꾼이나 약장사가 왔나, 길에서 뭘 하는 걸까 하는 의문에 끝까지 지켜봤죠. 당시 작품이 감동적이거나 뭔가 강렬한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이후 김백기 감독은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년간 각종 예술 활동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다. 지난한 상업화에 몰든 홍대를 떠나 작년 5월 제주도의 이주를 결심한 그는 최근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매일올레시장, 강정포구 등을 무대로 삼아 작년 연말 서귀포에서 제12회 한국예술제를 선보였다. 그동안 문화의 불모지라 불렸던 제주지역에 나타난 김 감독의 예술은 낯설고도 새로웠



제주의 ‘홍대거리화’를 꿈꾸는 김백기 감독.

다. 돌하르방에 웃을 일허주는 워크숍, 전통시장과 해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예술행위, 특히 ‘바다는 어머니의 품이다’란 주제를 갖고 강정이란 상징적 공간에서 열린 평화·상생 기원 퍼포먼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백기 감독은 자신에게 서귀포는 실험예술무대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보물섬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미처 시도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밝게 웃었다.

“서울 홍대거리서는 제약을 많이 받은 공간적 부분에서 훨씬 자유로워졌죠. 바람을 활용하는 퍼포먼스, 바다와 돌을 활용한 예술 등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실험예술은 누군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상상해 현실화 하는 것인데 제게는 그야말로 제주가 최고의 무대인 셈입니다.”

김 감독은 제주 지역에서의 실험 예술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행사계획을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제주의 현지화된 콘텐츠로 축제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24일, 자신의 한국실험예술제를 확장시킨 ‘국제실험예술제(JIEAF)’를 선보이고자 구상함을 흘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예술을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예술가의 작품이냐 행위를 단순히 평가나 지위에 따른 과장된 평가라 비난한다. 이에 김 감독은 한 예술가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을 권했다.

“누군가 피카소의 그림은 내가 발로 그린 것만 못한다고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예술은 누가 최초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예술도 누군가 이미 행했던 것을 반복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도 예술가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최초’이기에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것이라고 말יי죠.” 강수빈 기자

제주발전 위한 인력뱅크 가동

국제관계 전문가 초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속의 제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만의 가치를 더한 미래발전 수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을 포함한 국제관계 전문가를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4일 열린 이 자리에서는 전직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공로명 전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유명한 전 세종대학교 이사장, 김성환 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는 각종 매체로부터 전문성과 폭 넓은 외교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들은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외교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등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원 지사와 함께 JIBS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제자유도시 및 평화의 섬 전략 등 제주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인적 네트워크 운영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 외교부장관 방문 등을 시작으로 제주프렌들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이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 제주문화원형 공모전

28명 도의 참가자 등 관심

제주영상위원회에서 5월28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4 제주문화원형 전국 영상콘텐츠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63편의 작품이 응모됐다. 도내 참가자는 일반부 19명, 학생부 16편으로 총 35명이다.

이번 공모 분야는 다큐, 영화, 애니메이션을 제작방식으로 제주의 물, 초가, 말, 물, 해녀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제주에서 촬영된 영상만 출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28명의 도의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전 심사는 도내·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차 심사할 계획이며,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영상페스티벌 행사에서 2차 심사와 함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작에 대한 상금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며, 일반부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 청소년부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심사위원 특별상은 일반부 및 청소년부 중 1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 7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는 이번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하여 영상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국어문화원장

“언어환경과 말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의 언어 환경에서 국적 불명 언어의 남용을 주의해야 한다”

말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알려진 〈삼국유사〉의 ‘제48대 경문대왕’을 언급한다.

왕(경문왕)이 즉위한 후 갑자기 귀가 당나귀 귀처럼 자랐다. 왕후와 궁인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복두장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토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복두장이 죽을 때가 되자 도립사 대술 가운데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나무를 향하여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吾君耳如驢耳).” 그 후 바랍이 불면 대술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위는 〈삼국유사〉의 일부본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왕이 그것을 싫어하여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吾君耳長).’”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듣기 싫은 임금이 대나무를 베어내어 황폐화시키지 않고 산수유나무로 대체 조림(代替造林)을 했다는 데도 있지만, 대술과 산수유나무 숲에서 들리는 말의 내용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곧 대술에서는 ‘임

우리말은 안녕한가?

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산수유나무 숲에서는 ‘임금님 귀는 길다.’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라. 당나귀 귀는 위로 쭉긋하게 솟아오른 귀다. 귀는 정수리를 지나쳐 그 위로 솟아올랐으니 그것을 보거나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그런 모습이나 장면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복두장 곧, 모자 만드는 장인한테 귀를 가릴 수 있는 완갑을 부탁했다. ‘이런 사실을 발설하면 3족을 멸하리라’는 엄포도 놓았으리라. 복두장은 상황이 이리하였으니 평생 시는 임금님 귀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대술으로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던 것이다.

반면, 산수유나무 숲에서 들리는 ‘임금님 귀는 길다.’는 어떤가? ‘귀가 길다’는 것은 세로로 길어진 것이니, 대개는 귓볼이 아래로 늘어진 귀다. 이런 귀는 ‘인자함·복됨’을 느끼게 하는 귀라는 속설을 따르다면, ‘임금님 귀’는 추앙 받는 임금님의 자태가 될 터이니 굳이 가릴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처럼 대술에서의 말과 산수유나무 숲에서의 말이 다른은 곧 언어 환경과 말(언어)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언어 환경을 보자.

김밥천국, 고민정토의, 제대Pc Zone, CU, TORTONI, 9NINE, 김싸네, YOGERPRESSO, 밥먹젠, TIAMO, 오니기리와 이규동, 진성반점, C&P Printing Shop, KITTEN, Tous Les Jours, GS25, Jin's TOEIC 토익어학원, Nabi, MOM's Touch, 오스뮤지엄, Trebean, MJ TOEIC.

이는 우리대학교 정문 앞 벚꽃 길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보는 간판들이다. 8개 건물에 22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는데, 이 가운데 68%인 15개 간판이 외래어·외국어를 쓰고 있다. 우리말 또는 한글 간판은 손가락 다섯 개면 헤아릴 정도다.

간판 언어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외래어나 외국어를 선호하고, 자국적이고 경박한 유행어를 쫓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학문의 정당인 대학에서조차 ‘여자서부터, 하우알유,一起 있는, 史랑 함께, 爰브리원’과 같이 국적 불명의 언어를 남발하는 게 현실이다.

또 인터넷 언어의 비속성과 폭력성은 심각하다. 작년 12월 ‘바르고 고운 자랑스러운 우리말, 함께 가꾸어 나가자’는 강령으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을 출범시킨 점을 생각하며, 또다시 568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은 안녕한가?’를 묻고 싶다. 정녕 우리말은 안녕한가.

자유로워서 아름다웠던
대학시절을 그리며

동문칼럼



김목란
국어국문학과 어학번
사귀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나에게 ‘이십대’와 ‘청춘’이란 단어는 들기만 해도 파릇파릇 봄기는 느껴지는 기분 좋은 단어다. 거기에 ‘대학생활’이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 최고의 시간들이 가득 차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버려서, 이제 현기증이 날 만큼 아득해져 버렸지만, 스무살과 함께 시작된 나의 대학시절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자유시간은 줄어들었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서 일까. 그 자유로운 때문에 대학시절은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되어 버렸다.

대학시절엔 강의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 모두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자유시간에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며 행복하게 보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나름 아픔이 있었고 고민과 방황을 했던 것 같다. 구체적인 않지만 불안하면서도 초조함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두려워 하기도 했던 것 같다.

어른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도 없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시기였다. ‘취직’이라는 압박감도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치뤄야 할 인생의 수순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시기였다. 게다가 얇은 종잇장처럼 감성은 가벼워져 대학교 진입로에 핀 벚꽃을 보면서 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다가도, 바람 불고 금방 꽃이 저버리면 가슴이 시려왔다.

<파니핑크> 같은 영화를 보거나 최윤의 <회색는사람>이나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읽고 나면 며칠 동안 우울했던 나에게 과거는 아름다웠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불안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시간이 아닐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다고 본다. 방황하고 고민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커지고 단단해지더라.

이십대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이런 다짐을 해 둘 것이다. 두려워 말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하고 치열하게 살기를. 방황하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고민하자고. 그 이후에 오는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이 가장 힘이 될 테니까.

대학생 시절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더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길 당부하고 싶다. 짧은데 무엇이 무서울까. 두려움 없이 더 많이 둘러보고 관찰하고 체험하고 사색하는 부지런한 대학시절을 보낸다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인생이란 우물엔 그런 추억들이 가득 고여 있어서, 언젠가 힘들고 지칠 때 때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요우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독자기고



김서연
경제학과 1

요우커란 관광객을 의미하는 중국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요우커가 한국에, 특히 제주도에 많이 몰려들고 있다. 한류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데다가 하늘 길은 직항노선까지 생기는 덕분에 요우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쉽고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중국의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이 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딜 가나 중국인들이 보이고 중국어가 들린다. 예를 들어 당장 화장품 가게만 가더라도 한국말이 어눌한 중국인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소수일 정도로 요우커들이 많고 제주도의 거의 대부분 관광지도 요우커들이 접수한 상태다. 정말 몇 년 사이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현상에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다.

먼저 긍정적인 점은 요우커들에 의해 시장경제가 활발해진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시장이나 호텔 시장, 관광 가이드 시장에서는 요우커들 덕분에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요우커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과 항공사, 가게들이 각각 요우커 마케팅 같은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내놓는다.

반면 안 좋은 점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땅을 사는 것이 지금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범죄들도 많다고 있다.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요우커들이 질서를 어지럽혀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고려야할 점도 있다. 일단 요우커에 대해 이유 없이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은 모든 중국인들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요우커들을 위해 중국어 서비스를 늘려 나가야 하고 공항 노선을 늘리는 것 외에도 공항이 더 이상 포화되지 않도록 신공항 건설이나 공항 확장 같은 대책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한다.

이젠 정말 제주에 요우커가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안 좋은 점에 대하여 많이 연구해보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적합한 대안을 추려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한국인과 중국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시급히 고려야 하는 점인 우리가 중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만큼 요우커들을 위한 관광객 안내 지침서나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도록 처벌 규정도 만들어서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미디어의 ‘성 상품화’ 도넬어

윤동훈
수학과 2

최근 TV를 보면 심심치않게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아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은 출연진 노홍철을 장가보낸다는 내용이 담긴 ‘홍철아 장가까지’ 특집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2~30대 여성이 많은 여대를 돌아다니며 노홍철 개인의 기준에 맞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것과 여성들을 다시 외모, 조건 순으로 나눴다는 것에 시청자들은 큰 불쾌감을 표현했다. 여성의 상품화와 논란과 더불어 외모지상주의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는 것이다. 한 시청자는 우스갯소리로 ‘노홍철이 후궁이라도 간택하는 줄 알았다’는 표현을 했다. 출연진들과 담당 PD의 사과가 이어지며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는 비단 무한도전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7월에는 가족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복복복 게임을 한 출연진들 중 이진 팀은 바키니를 입은 미녀들과, 진 팀은 개그우먼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각종 매체가 외모지상주의와 성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는 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각종 미디어는 성적 호기심만을 유발하고자 노골적이고 더욱 자극적인 장면을 내세우고 있다. 드라마는 시청률을 높이려고, 영화는 보다 많은 관객동원을 위해, 광고는 상품을 자극적으로 각인

시키기 위해 과다하게 성을 부각하고 있다. 영화가 뜨기 위해서 여배우의 노출은 필수조건이라는 영화계의 말이 이젠 결코 농담이 아닌 것이다. 과거엔 여성의 성 상품화만이 주로 도마위에 올랐으나 최근엔 남성의 성 상품화 논란도 보이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성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의 매력과는 별 관계도 없이 상의 탈의를 하거나 샤워를 하며 ‘식스팩’을 자랑하는 장면들이 무척 늘었다. 유명세를 타지 못하던 모 걸 그룹이 시원하게 벗는다는 컨셉을 각종 기사와 TV프로그램에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마치 길거리의 약장수가 ‘여디까지 보여주면 민겠습니까?’하고 외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문제는 대중들의 관심이 성 상품화에 몰리기 때문에 매체들이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성 상품화의 문제점은 이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더욱 자극적인 성적 표현을 원하게 되는 것에 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기를 위해 신체의 은밀한 부분까지 내보이기를 강요당할 때 소속사나 각종 매체들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를 방관하고 즐기는 우리들 또한 이들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성숙한 시청자 문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매체의 생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이러한 문제의 뿌리를 뽑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잊음이 많아야 아랫물도 맑아지지만, 아랫물로부터의 강한 수압으로 잊물을 정화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

동아리연합회 공약 이행률 83%… 12건 중 10개
“모든 동아리를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은 미흡”

<3>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상반기 평가

‘당. 신. 의’ 동아리연합회(회장 고두현 생활환경복지학부 4)의 임기가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았다. 제주대신문은 이들의 공약 이행률을 살피고 지금까지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공약 이행률

‘당.신.의’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자원부서 설립, 동아리 대표자 격려금 지급, 동아리 홍보 강화 등 동아리들의 홍보와 복지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까지 12개의 공약 중 10개를 이행하며 83.3%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동아리 홍보 강화, 정기적인 방역, 동아리 자원부서 설립 등의 공약이 이행됐다.

동아리 홍보 공약은 동아리연합회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공약 중 하나다. ‘당.신.의’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거나 단과대학 게시판과 건물 게시판에 동아리 소개 대자보를 게시했다. 또한 학교 측과의 문의를 통해 3월에 그쳤던 홍보 현수막 부착기간을 2주로 늘리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신입생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다니며 동아리 홍보를 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각 학과마다 학생회관을 한 바퀴 돌며 동아리 홍보 데스크를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을 부탁하기도 했다.

프린터와 복사기의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불만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공약을 위해 동아리연합회는 프린터의 이용 한도를 월 3000장에서 5000장으로 늘렸다. 하지만 컴퓨터나 프린터의 고장이 잦아 동아리 회원들이 자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동아리 연합회 측은 “컴퓨터와 프린터 자체가 상당히 노후

돼 있다”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데도 고장이 날 경우 수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각 동아리 방내에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도 9월회의 이후 분배했다. 그러나 학생회관 내 쓰레기통 개선 공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학생복지과 담당 직원과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눴으나 담당 직원이 바뀐 관계로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 직원과 다시 한 번 조율해 10월 중에는 진행할 계획이다.

▶동아리 복지 강화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지원국을 설립해 활동했다. 동아리 지원국은 일종의 동아리 서비스 센터이다. 올해 처음 설립된 지원국은 동아리 지원금이나 행사 신고서, 동아리 접수 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국이 생기면서 지원금과 행사 신고서 양식도 간소화 됐다. 각 동아리 회장을 맡은 학생들이 지원금 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국에서는 양식 작성을 보조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아리 총 앰티 공약도 지켰다. 이는 동아리 회원들 간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호평을 받았다. 총 앰티에 참가한 김은진(산림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3)씨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

다”고 말했다.

▶학생회관 관리

동아리연합회 내의 관리국은 매주 순찰을 돌며 게시판이 아닌 곳에 붙여진 무허가 포스터를 떼어내고 있다. 또한 학생회관 내의 노후된 게시판을 리모델링했다.

동아리연합회는 외교원이나 국방부와 같은 학교 기관이나 국가 기관에서 붙이는 포스터는 가능한 한 가만 놔두는 편이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인 포스터일 경우 떼어버린다. 또 얼마 전 계속해서 상업적인 포스터를 무허가로 붙인 외교원을 찾아가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동아리 연습 공간 마련 추진 공약은 연습 공간이 필요한 동아리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행했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관은 동아리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다”며 “동아리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문의가 들어올 경우 그들에게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에 지하 연습실을 리모델링해 연습 공간을 늘렸다. 그리고 체육관의 리모델링으로 학생복지과와 ‘진짜’ 총학생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합평가

제30대 ‘당.신.의’ 동아리연합회는 홍보와 복지공약들이 주를 이뤘으나 학생회관 시설관리 문제도 빠트리지 않았다. 각 동아리 방의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

하고 쓰레기통을 개선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그러나 몇몇 동아리 회원들은 소리함 부착 공약이 9월부터 시행돼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내놔다.

도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관 관리자로서 중립의 입장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진짜’ 총학생회는 공약에서 학생회관 내의 시청각실과 전시실을 스터디룸으로 바꾼다고 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는 시청각실을 스터디룸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은 상태다. 대신 전시실은 사용이 없을 경우 스터디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동아리연합회는 홍보나 복지에 치중해 동아리연합회로서 모든 동아리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데 실패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약을 준비할 수 있다면 모든 동아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약도 준비해야겠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차기 동아리연합회에게는 역대 최고의 동아리연합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는 83%의 공약을 이행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17%의 공약도 끝까지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공약을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는 ‘당.신.의’ 동아리연합회가 돼야 할 것이다.

정현 기사

2014년도 상반기 ‘당.신.의’
동아리연합회 공약이행표

1. 동아리 홍보 강화	○
2. 게시판 리모델링 및 포스터 관리	○
3. 동아리 총 앰티	○
4. 동아리 연습실 공간 마련 추진	○
5. 정기적인 방역 실시	○ (7월·9월 시행 / 11월 예정)
6. 소리함 부착	○
7. 프린터 및 복사기 이용 연장	○
8. 각 동방 내·중앙현관 쓰레기통 개선	△ (동방 내 이행 / 중앙현관 협의중)
9. 동아리 지원부서 설립	○
10. 동아리지원금·행사 신고 접수 간소화	○
11. 시험기간 간식 배부	○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정)
12. 우수 동아리 대표자 격려금 지급	△ (11월 예정)

- 완료(○) : 10개
- 진행중(△) : 2개

제주대신문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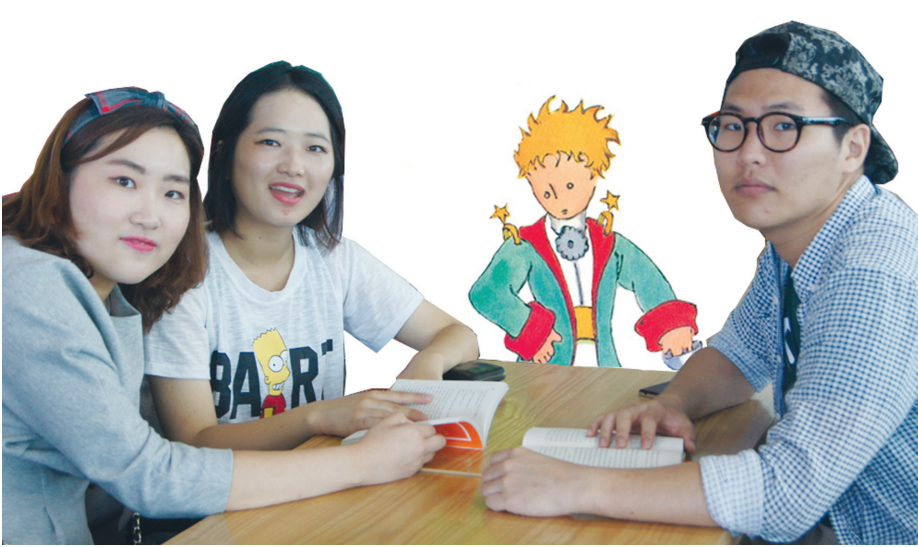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이정빈 (언론홍보학과 3), 이주영 (언론홍보학과 3), 이지현 (관광경영학과 3)씨.

어릴 적 무심코 책장에서 읽었던, 혹은 방학숙제를 하기 위해 꾸역꾸역 읽었던 책들을 성인이 돼서 읽는 것은 감회가 새롭기 마련이다. 이주영 (언론홍보학과 3), 이지현 (관광경영학과 3), 이정빈 (언론홍보학과 3)씨는 어릴 적 읽었던 『어린왕자』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때 권장도서 목록에 있던 책이라 읽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독후감을 쓰기 위해 억지로 읽었던지라 당시에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돼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돼서 기억나는 어린왕자는 코끼리를 삼킨 뱀인 모자 모양 그림 뿐이었어요”

이렇듯 그들은 어린 시절 읽었던 『어린왕자』에서는 큰 감동을 찾지 못했다. 또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책의 내용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10년 정도 흐르고 다시 읽은 책들은 한 구절마다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어릴 때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의 그림과 양이 담겨 있다는 상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림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주영씨는 “보아구렁이의 그림과 양이 담겨있는 상자 그림 모두 그림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하겠지만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다시 『어린왕자』를 읽어 보면서 어릴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아구렁이의 그림과 상자의 그림 모두 어른들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현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어린왕자의 말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특히 요새는 SNS가 우리 생활에 크게 자리 잡으면서 전보다 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

습이 생각나면서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미와의 사랑

아마도 어린왕자는 자신의 별에 있던 그 까맣스러운 장미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현 <어린왕자>에는 ‘사랑했다’는 표현 대신 ‘길들였다’ 혹은 ‘장미를 위해 시간을 공들였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 그들은 이러한 표현들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이정빈씨는 “이번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 어린왕자가 장미를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어릴 적에 읽었을 때엔 장미는 단지 어린왕자의 별에서 사는 하나의 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다른 별로 여행을 간 어린왕자가 다른 장미를 보면서 ‘너희들은 내 장미와는 조금도 닮지 않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너무 아렸다”고 했다. 그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났다고 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단 하나뿐인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주영씨도 “정빈씨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김춘수 시인의 시와 비슷한 느낌이다”고 공감했다. 그는 이어 “어린왕자가 다른 장미들에게 ‘너희들은 공허해’라며 자신의 장미는 자신이 물을 주고 고개를 숙여줬기 때문에 더 소중한다고 순수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느꼈다”며 “나의 시간을 쏟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나에게 단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씨는 “여우가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되는거야’고 말했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난다”며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쉽지 않으며 혹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섯 개의 별

어린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주변의 여섯 개의 별로 여행을 시작한다. 여섯 개의 별들은 각각 왕의 별, 허영쟁이의 별, 술꾼

다시 『어린왕자』를 읽는다면

“단순한 ‘추억의 복원’이 아닌
어른의 영혼도 또 한번 성장시키는
것이 위대한 고전”

성년 시각으로 분석한 해석 흥미로워

의 별, 상인의 별, 가로등 점등인의 별, 지리학자의 별이었다.

이지현씨는 “단순히 어린왕자가 주변의 다양한 주인의 별들을 여행했던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섯 개의 별의 주인들이 모두 어른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섯 개의 별을 여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영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별은 왕의 별이었다”며 “권력에 취해 명령만 하려 하지만 실제적으로 능력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권위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모습이 가장 내가 ‘되지 말아야지’하고 다짐하는 어른의 모습인데 흑사라고도 그런 어른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정빈씨는 가로등 점등인의 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유희성 없이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서 담아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다시금 읽어본 <어린왕자>는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문장들의 연속이었다.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던 대사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놓쳤던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다.

이주영씨는 “이번에 <어린왕자>를 다시 읽기 전에는 ‘내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거야’라는 대사를 많이 봐서 그 대사가 가장 좋은 대사일 것이라 생각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오히려 그 대사는 크게 감동을 주지는 않았다”라며 “‘사막은 외롭구나’라고 말하는 어린왕자에게 뱀이 ‘사람들 속에서 또 외롭기는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더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꼭 담아 준 것 같아서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다”라고 했다.

이정빈씨는 ‘길들임’에 대한 부분이 가

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어린왕자에게 길들여진 여우가 어린왕자를 떠나지만 자신은 밀을 보면서 어린왕자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에 남는다”며 “서로에게 길들여졌고 헤어졌지만 서로에게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면 더 슬프거나, 덜 슬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어릴 적 책을 다시 읽는다는 것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변했고 문장의 의미들도 조금은 변해서 다 가웠을 것이다. 책의 내용을 다시 느끼거나, 우리가 자랐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지현씨는 “내가 어릴 적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글을 곱씹을수록 의미가 깊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정빈씨는 “어릴 적에 읽었을 때에는 지나쳤던 부분이 가슴에 너무 와 닿아서 놀랐다”며 “어른들도 어린왕자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재밌게 책을 읽었다”고 했다. 이주영씨는 “아예 새로운 책을 읽는 기분이었다”며 “내용이 감성적이고 전하는 메시지가 많아서 정말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가 비로소 책의 내용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많이 아프고, 다치고 그만큼 성장한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쌓여있고 우리는 한껏 단단해져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어린 시절 그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났는지를 새삼스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우리는 보다 문장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만의 의미로 가슴속에 새길 수 있다. 어린 시절 읽고 서재에 꽂아두었던 그 책을 다시 꺼내들어도

유주연 기자



황경수 행정학과 교수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영혼도 뺏아간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알림음이나 진동이 들리는 등 환경을 느끼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시험을 2년 일찍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딸도 중학교 2학년인데 폴더 폰으로 바꿨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말에게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요즘 딸아이가 직접 폴더폰을 쓰겠다고 요청을 해 매우 자랑스럽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업의 목적보다 SNS, 게임 등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

“스마트폰 사용, 절제력부터 키워라”

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절대 약이다. 매 강의시간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물을 만든다. 바로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원활한 강의를 위해 스마트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꺼내라고 지시한 뒤 정보를 검색하고 다시 감추게 한다.

항상 수업시간마다 스마트폰의 악한 영향을 설명한다.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놓는 등 의심의 행동을 보일 시 바로 제재한다. 강의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 불이익이다. 우선, 자신의 공부 방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벨소리가 울릴 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의 지식함양을 위해 조력의 의무가 있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정숙의 의무도 있다. 제주대에 재학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도 강의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철저히 금지시킬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면 학생들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정리=백승규 기자



변종철 화학과 교수

“스마트폰은 편리한 학습도구”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이다. 시대가 흐름수록 디지털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 정보를 검색하거나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즐기는 등 윤택한 삶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거리를 지나다보면 모두가 고개를 떨고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과는 많이 다르게 대화가 단절되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 딸과 아들 모두 제주대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스마트폰이 좋거나 나쁘다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적당히 이용해야 한다. 절제하는 지혜를 발휘해 적절히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편리한 도구로써 사용해야 한다.

정리=백승규 기자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국립제주대학교

201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 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 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4. 10. 13(월) 10:00 ~ 10. 16(목) 17:00	2014. 11. 18(화) 10:00 ~ 11. 21(금) 17:00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첨부서류 제출 (등기우편, 택배, 방문)	2014. 10. 13(월) ~ 10. 21(화) 18:00	2014. 11. 18(화) ~ 11. 26(수) 18:00	●제출처 : 우)690-756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토요일요일은 휴무
실기고사	2014. 10. 28(화) 10:00 ~		●장소 : 음악관
필기고사		2014. 12. 12(금) 10:00 ~	●장소 :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면접고사	2014. 10. 28(화) 10:00 ~ 2014. 10. 28(화) 14:00 ~	2014. 12. 12(금) 15:00 ~	●장소 : 모집단위별 학과사무실 ●장소 : 음악관, 미술관
합격자 발표	2014. 11. 17(월) 예정	2015. 1. 9(금) 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없음

※ 1.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은 일반전형으로만 모집합니다.
2. 특수대학원(교육·경영·행정·산업·사회교육대학원) 및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각 대학원별로 실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문의처
전화 : 064-754-3991
입학 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ac.kr